받는 쪽은 품에 밀려 신청을 접고, 큰 기금 두 곳은 기간과 결정권을 걸었다

독일 공모 요강 가운데 최대 금액을 밝힌 것은 39%였고, 미국 단체가 역량에 쓰는 몫의 중간값은 1~2%였다. 잉글랜드는 지역 60곳에 10년짜리 주민 결정 기금을 내놓으며 운영 단체에 규모를 요구했다. 영국 연말 기부는 첫 주에 건수가, 중순에 평균 금액이 큰 기부가 온다.

1 빈칸 요강에 AI 신청과 AI 심사가 맞붙는 것으로 읽힌다 2쪽

2 두 큰 기금은 기간을 걸고 받는 쪽 역량을 문턱으로 둔 것으로 읽힌다 3쪽

3 행사 너머 한 해 식품 물량은 약정과 구매가 채우는 것으로 읽힌다 5쪽

4 12월 기부는 고르게 퍼지고, 큰 금액은 중순에 오는 것으로 읽힌다 5쪽

5 해외 자선 출전권은 참가자가 모으고, 국내 한 행사는 참가비에 멈췄다 6쪽

6 역량 몫 1~2%에서 작은 단체는 시작점부터 막힌 것으로 읽힌다 6쪽

7 직장 단위 고향사랑기부는 10만 원 선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읽힌다 7쪽

이번 주의 숫자

39%
최대 지원 금액을 숫자로 밝힌 독일 공모 요강

10년
잉글랜드 지역 60곳 주민이 쓰임을 정할 기금의 기간

22만 5,000유로
굿맨 재단이 3년간 바르셀로나 영유아 식품에 대기로 한 돈

37%
영국 12월 15~24일 평균 기부액이 첫 두 주보다 높은 정도

1,150파운드
리얼버즈 자선 달리기 참가자 한 명의 평균 모금(나눗셈)

1~2%
미국 단체가 역량 강화에 배정하는 몫의 중간값

1 빈칸 요강에 AI 신청과 AI 심사가 맞붙는 것으로 읽힌다

39%
최대 금액을 숫자로 밝힌 독일 공모 요강

독일 레플렉타가 11월 19일 낸 보고서를 보면 올해 신청할 수 있던 지원 프로그램은 1만 3,236개, 이를 낸 지원 기관은 6,206곳이고 그 열에 일곱은 프로그램이 딱 하나다. 요강은 자격 요건(95%)과 마감(93%)은 거의 적었지만 한 건의 최대 금액은 39%, 지원 비율은 29%만 숫자로 밝혔다. 신청자 278명 가운데 58.6%는 지난해 맞는 공모를 건너뛴 적이 있었고, 품과 금액이 맞지 않다(66%), 사람이 없다(63%)를 이유로 꼽았다.

같은 조사에서 넷 중 셋은 찾기나 작성에 AI를 쓰지만 그 가운데 일곱에 하나만 지원 기관에 알렸다. 스위스에서는 재단용 AI 선별 도구를 파는 플랫폼 스페리크의 슈테판 쇠비가 지원 재단마다 신청이 크게 늘었는데 AI 때문만은 아니라고 했다. 재단들은 신청을 거르는 데 AI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됐고, 사업이 지원 목적에 맞는지, 사실과 다르지 않은지는 AI가 잘 판단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신청서를 끼워 맞추는 방식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라는 다르지만 두 자료를 나란히 놓으면 금액을 모른 채 AI로 쓴 신청과 AI로 거르는 심사가 맞붙는 구도로 읽힌다. 빈칸이 많을수록 맞지 않는 신청과 거르는 품이 함께 늘 것으로 본다. 지원 기관 열에 일곱이 공모 하나만 내니, 빈칸을 고칠 사람도 대개 그 공모 하나의 담당자로 읽힌다. 국내 기업 공모에서 접수는 느는데 맞는 신청은 줄었다고 느낀다면 이 구도부터 의심할 만하다. 신청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가 고른 양식 53개(대부분 시민재단)는 첫 쪽부터 접근성 기준을 다 채운 곳이 없었다.

포기 이유가 품과 금액이 맞지 않아서였으니, 금액을 비운 요강은 신청자가 미리 가늠할 길을 막는 것으로 읽힌다. 첫 쪽 숫자 몇 개가 양쪽 품을 함께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공모 담당자는 이번 달 내년 요강 첫 쪽에 건당 최대 금액·자부담·예상 작성 시간을 적고, AI 사용을 밝히는 칸을 둔다.**

2 두 큰 기금은 기간을 걸고 받는 쪽 역량을 문턱으로 둔 것으로 읽힌다

10년
잉글랜드 60곳 주민이 쓰임을 정할 기금의 기간

잉글랜드 커뮤니티 웰스 펀드는 11월 3일 발표한 대로 지역 60곳에 10년 동안 1억 7,500만 파운드, 곳마다 약 255만 파운드를 나눈다. 쓰임은 주민이 정하고, 운영은 평균 연 매출 20만 파운드 이상인 등록 자선단체가 맡는다. 미국 포드·맥아더 재단 등은 11월 18일 2,600만 달러 기금을 내고 50만~100만 달러짜리 3년 유연 지원을 걸었다. 신청 단체는 다년 지원금을 관리할 역량을 보여야 하고, 큰 재단 눈에 덜 띄는 단체에 닿으려 연결 조직 아홉 곳을 두었다.

10년에 고르게 나눈다고 치면 잉글랜드 기금은 한 곳에 한 해 약 25만 5,000파운드꼴이다. 주민이 쓰임을 정할 돈이지만, 그 돈을 맡아 굴릴 운영 단체에 요구한 최소 연 매출보다 큰 규모다. 미국 기금도 한 해 17만~33만 달러꼴이다. 리버풀 광역시장은 대대로 쌓인 문제를 단기 자금으로 고칠 수 없다고 했고, 독일 레플렉타 조사의 익명 답에는 프로젝트병에서 벗어나 구조를 오래 지원해 달라는 말이 예시로 실렸다.

세 나라를 나란히 놓으면 이번 두 기금은 사업 단위 지원 대신 기간과 결정권을 걸고, 그 돈을 받아 굴릴 조직의 역량을 문턱으로 세운 것으로 읽힌다. 문턱을 넘을 조직이 없는 지역에는 기간이 길어도 돈이 닿기 어렵다고 본다. 미국 기금이 연결 조직을 둔 이유로 밝힌 것도 큰 재단 눈에 덜 띄는 단체에 닿는 일이었다. 놓치기 쉬운 함정은 기간만 늘리고 관리할 사람과 시스템의 몫은 그대로 두는 것이다.

지역 공헌 예산을 해마다 새로 정하면 협력 단체가 다년 사업을 맡을 힘을 기를 틈이 적을 수 있다. 기간을 늘릴 때 관리 몫을 함께 주어야 돈이 지역에 닿는다고 본다. **공공기관 지역협력 담당자는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 공헌 일부를 3년 약정으로 묶고, 운영 단체의 관리·정산 인건비를 별도 항목으로 적는다.**

1번 변화에 붙여

첫 쪽 숫자 몇 개로 맞지 않는 신청을 미리 거를 수 있다

요강을 고칠 때 순서는 빈칸부터다. 최대 금액, 자부담 비율, 심사 일정 가운데 아직 정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범위로라도 적는 편이 낫다. 정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신청자에게는 쓸지 말지를 정할 정보가 된다. 실수하기 쉬운 대목은 금액을 밝히면 신청이 그 금액에 몰릴까 걱정해 감추는 것이라고 본다. 감추면 맞지 않는 신청을 걸러 내는 품이 심사 쪽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읽힌다.

신청서의 AI 사용도 금지보다 고지로 다루는 편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넷 중 셋이 이미 쓰는데 일곱에 하나만 밝힌다면, 금지는 밝히는 사람만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 채용 공고가 급여 범위와 전형 단계를 먼저 적듯, 공모도 받는 쪽이 들일 품을 먼저 보여 주는 문서로 바꿀 만하다. 고지 칸은 찾기·초안·번역·다듬기 가운데 어디에 썼는지 고르는 몇 줄이면 되고, 고지했다는 이유로 감점하지 않는다고 요강에 적어 두면 밝히는 쪽이 손해 보지 않는다. 양식을 외부 업체가 만든다면 접근성 점검 결과를 계약서에 넣어 두는 것도 방법이다.

2번 변화에 붙여

다년 약정을 맡길 단체에는 관리 몫부터 묻는다

기간을 늘리는 결정은 예산표 한 줄이지만, 받는 단체에는 여러 해치 정산과 보고가 한꺼번에 생긴다. 잉글랜드 기금이 운영 단체에 일정 규모를 요구한 것도 그 무게 때문으로 읽힌다. 국내 기업이 지역 단체와 다년 약정을 맺을 때도 첫 만남에서 물을 것은 사업 아이디어보다 지금 정산과 보고를 누가 얼마나 맡고 있는지다. 답이 대표 한 사람이라면 약정 금액의 일부를 그 자리에 쓰게 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

작은 단체를 바로 고르기 어렵다면 미국 기금처럼 연결 조직을 사이에 두는 방법이 있다. 지역 중간 지원 조직이나 사회복지협의회에 단체 추천과 첫해 정산 도움을 맡기고, 둘째 해부터 단체가 직접 맡는 순서다. 흔한 실수는 다년 약정을 맺어 놓고 해마다 새 성과 지표를 붙이는 것이다. 지표가 바뀌면 단체에는 매년 새 공모와 같다. 약정 기간의 지표는 첫해에 정해 두는 편이 낫다.

3 행사 너머 한 해 식품 물량은 약정과 구매가 채우는 것으로 읽힌다

바르셀로나에서 굿맨은 2024년 직원 팀으로 식품 모금에 참여한 뒤 2025년 5만 유로를 냈고, 올해 7월부터 재단이 3년간 22만 5,000유로를 영유아 식품에 대기로 했다. 한 해 7만 5,000유로꼴로 첫 출연의 1.5배다. 올해 모금에는 자사 물류 거점 일부도 임시로 내주었다. 서산의 HD현대오일뱅크는 약 100명이 김치 3,000포기를 담그는 하루와 별도로 해마다 서산 햅쌀 10억 원어치를 사서 기부한다. 굿맨은 참여가 약정으로 넓어졌고 서산은 김장과 구매가 나란히 간다. 경로는 달라도 1년 물량은 행사보다 약정과 구매가 채우는 것으로 읽힌다.

김장 같은 하루 행사만으로는 1년 물량이 차지 않으니, 함께한 관계를 약정으로 넓힐 수 있는지 따로 물을 만하다고 본다. **사회공헌 담당자는 12월 안에 김장을 함께한 기관에 식품이 비는 달을 묻고, 다음 해 약정 금액과 기간을 한 장으로 적는다.**

4 12월 기부는 고르게 퍼지고, 큰 금액은 중순에 오는 것으로 읽힌다

영국 엔서스 자사 자료에서 지난해 12월 건수가 가장 많은 날은 처음으로 2일이었지만, 그날 몫은 4.7%로 한 해 전 최다일의 5.5%보다 작았다. 첫 주 하루 몫은 4%, 셋째 주는 3.2%였고 15~24일 평균 금액은 첫 두 주보다 약 37% 높았다. 엔서스는 12월 초와 말 가운데 하나를 고르지 말라고 권했다. 미국 블랙보드는 지난해 기빙튜즈데이 모금이 13% 늘 때 낸 사람은 3% 늘었고, 2024년 그날 기부자의 65%가 이듬해 다시 냈다고 전했다.

첫 주에 참여를 모으고 중순에 금액을 묻는 두 단계로 짜야 연말 모금의 뒤쪽 절반을 놓치지 않는다고 본다. **임직원 모금 담당자는 이번 달 안내를 둘로 나눠 12월 첫 주엔 참여를, 15일 무렵엔 이미 낸 사람에게 증액을 묻는 문안을 만든다.**

5 해외 자선 출전권은 참가자가 모으고, 국내 한 행사는 참가비에 멈췄다

리얼버즈를 거친 자선 달리기 모금은 2025~26 회계연도에 1,830만 파운드로 45% 늘었다. 다섯 대륙 3,702개 단체를 위해 1만 5,884명이 뛰었으니 한 명이 평균 약 1,150파운드를 모은 셈이다. 보고서는 추첨 경쟁이 치열한 대회에서 자선 출전권이 출발선에 서는 주요 통로가 됐다고 봤다. 같은 보고서가 인용한 자료로 지난해 영국 단체를 위해 저스트기빙에서 달린 사람들은 1억 6,400만 파운드 넘게 모았다. 서울 통큰런은 14일 일반 참가자 2,000명의 참가비 6,000만 원, 한 명에 3만 원을 기부했다.

참가비 기부는 접수가 22분 만에 끝나도 모금액이 참가자 수에서 멈춘다. 대회 조건은 달라도 개인 모금을 더하면 천장이 오를 수 있다고 본다. **사회공헌 담당자는 이번 달 협력 단체와 내년 달리기 행사안에 참가자 개인 모금 페이지와 목표액 칸을 넣는다.**

---

6 역량 몫 1~2%에서 작은 단체는 시작점부터 막힌 것으로 읽힌다

미국 캐털리스트 익스체인지 보고서에서 역량 강화를 지정해 주는 지원자는 약 45%였고, 단체 리더 69%는 역량에 쓸 돈이 모자란다고 했다. 단체가 역량에 배정하는 몫의 중간값은 1~2%였다. 연 매출 100만 달러 미만 단체는 34%가 어디서 시작할지 모른다고 답해 큰 단체(16%)의 두 배를 넘었다. 응답 단체 전체로는 지원이 필요와 맞을 때 69%가 효과적이라고 했다. 잰 것은 다르지만 스페인 에스플라이 재단 조사에서는 단체 301곳의 83%가 디지털 도구에 연 예산의 2% 미만을 썼다.

큰 재원이 요구하는 관리 역량도 이 작은 몫에서 길러지는 것으로 읽힌다. 돈만 얹으면 작은 단체는 어디에 쓸지부터 막힌다고 본다.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는 내년 협약서에 교육·시스템 항목을 따로 두고, 작은 협력 단체와는 첫 달에 막힌 곳 진단부터 함께 한다.**

7 직장 단위 고향사랑기부는 10만 원 선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읽힌다

영주시는 13일 NH농협은행 본점과 노벨리스코리아 서울 본사를 찾아 임직원에게 고향사랑기부를 안내했고, 청계광장 부스에서는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3만 원 이상 답례품을 고른 사람에게 사과를 더 얹었다. 보성·강진의 지역농협과 군지부 임직원 400명은 17일 서로의 군에 2,000만 원씩 냈는데, 총액을 인원으로 나누면 한 사람에 평균 10만 원이다. 이 제도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기부액의 30% 안에서 답례품을 준다. 공제를 다 받는 직원이라면 10만 원을 내고 공제 10만 원과 답례품 3만 원어치를 받는 셈이다.

직원에게는 비용이 거의 없는 선택이라 회사가 끼면 나눔보다 혜택 안내로 읽히기 쉽다. 사회공헌 실적과 섞지 않아야 개인의 선택으로 남는다고 본다. **사회공헌 담당자는 연말정산 안내 전에 고향사랑기부를 개인 선택으로 알리는 한 장을 만들고, 참여 인원은 회사 실적에서 뺀다.**

이슈 1

공익법인이 놓치기 쉬운 의무는 전용계좌 신고다

> 아름다운재단 재무회계팀장 글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목적사업 계좌를 사업전용계좌로 신고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결산서류는 사업연도 종료 뒤 4개월 안에 국세청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기업 재단을 새로 맡은 사회공헌 담당자라면 연말 결산 전에 재단의 계좌 목록부터 펼쳐 볼 만하다. 글은 수익사업용으로 쓰던 계좌를 정리해 목적사업용으로 돌릴 때 신고를 놓치기 쉽다고 짚었다. 계좌마다 용도와 신고 여부를 한 줄씩 적은 표를 만들고, 비어 있는 칸은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을 맡기는 순서가 낫다고 본다. 재단과 모회사 사이의 일도 함께 볼 대목이다. 글은 출연자가 지배하는 회사를 대가 없이 광고해 주는 행위가 금지되고, 회사명이나 로고를 알리는 단순한 행위는 제외된다고 적었다. 연말 보도자료에서 재단 사업과 회사 홍보를 어떻게 나눌지 홍보팀과 미리 정해 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이번 달 첫 걸음은 계좌 표 한 장이다.

이슈 2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대신 두 회사가 기금을 만들었다

> 아름다운재단 보도자료에 따르면 무버스 대표가 한백 창업주에게 빌린 사업 자금을 갚는 대신 두 회사가 함께 기부하기로 했다. 3년간 해마다 각 1,000만 원씩 6,000만 원을 미등록 이주민 영유아 의료비에 낸다.

오래 거래한 협력사나 창업주 시절의 인연이 있는 회사라면, 그 관계를 공동 기금으로 묶는 설계를 빌려 볼 만하다. 두 회사가 낸 것은 금액보다 이야기다. 기금 이름에는 여러 사람의 뜻을 모아 필요한 곳에 옮긴다는 뜻을 담았다. 사연이 이름에 남으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유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협력사와 함께라면 한 해 행사보다 해마다 같은 금액을 내는 다년 약정이 관계를 이어 주는 장치로 읽힌다. 분야도 의료 사각지대처럼 하나로 좁혀야 두 회사가 같은 보고를 받아 볼 수 있다. 이번 달에는 거래가 오래된 협력사 가운데 사회공헌에 관심을 보인 곳을 두세 곳 추려, 내년 공동 기금의 분야 후보를 한 장으로 적어 볼 만하다. 출연 비율과 이름 표기 방식은 처음 만날 때 정해 두는 편이 낫다.

이슈 3

팬클럽은 고향사랑기부 답례품까지 지역에 다시 내놓았다

> 이로운넷 보도에 따르면 가수 손태진의 팬카페 손샤인 회원들은 영주 공연을 찾아 1만~2만 원씩 고향사랑기부를 하고, 답례품 영주사과를 이웃에게 다시 내놓았다. 영주시는 이를 취약계층 40여 명에게 전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고향사랑기부를 함께 알리는 기업 담당자라면, 답례품을 다시 기부하는 선택지를 처음부터 안내에 넣어 볼 만하다. 팬클럽은 기부와 답례품 환원을 한 번에 했고, 시는 그 사과를 취약계층에 전하기로 했다. 임직원 안내문에 답례품을 받을지, 지역 기관에 돌릴지를 고르는 칸을 두면 세액공제는 그대로 두고 나눔이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행사장에서 즉석 참여를 받는다면 소액을 정해 두는 것이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읽힌다. 다만 답례품을 기관에 돌리는 절차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먼저 처리 방법을 물어야 한다. 이번 달 첫 걸음은 협력 지자체 한 곳에 그 절차를 묻는 것이다.

이슈 4

힐튼 재단은 청년 견습 과정 하나를 통째로 맡았다

> UK Fundraising 보도에 따르면 힐튼의 두 재단은 청년 취업을 돕는 영국 단체 12곳에 약 90만 파운드를 낸다. 그중 26만 파운드는 오랜 협력 단체 펠릭스의 올해 견습 요리사 과정을 전액 댄다.

업종 안에서 인력난을 겪는 회사의 사회공헌 담당자라면, 여러 단체에 조금씩 나누는 대신 협력 단체의 과정 하나를 통째로 맡는 방식을 빌려 볼 만하다. 힐튼 글로벌 재단은 식품 재분배 단체의 견습 요리사 과정을 전액 대고, 지난주 견습생 두 명은 힐튼 호텔 주방에서 처음 전문 주방을 겪었다. 회사의 현장이 곧 교육장이 되니 돈과 일 경험이 한 번에 간다고 본다. 국내라면 외식·유통·물류처럼 현장이 있는 회사가 자립준비청년이나 장애 청년 과정을 맡는 식으로 옮길 수 있다. 실습 자리를 내줄 때는 지도할 직원과 안전 교육을 먼저 정해야 한다. 이번 달 할 일은 협력 단체의 교육 과정 가운데 회사 현장 실습을 붙일 수 있는 것을 하나 고르는 것이다.

이슈 5

혼자 만드는 성과 보고서는 성공의 정의부터 정한다

> The Chronicle of Philanthropy 보도에 따르면 작고 중간 규모인 단체에서는 성과 보고서를 한 사람이 맡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성공의 정의를 먼저 정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성과 몇 개를 고르고, 자료와 사례를 모을 방법을 정한 뒤 AI 도구 등으로 꼴을 갖추라고 권했다.

협력 단체에 연말 성과 보고를 받는 기업 담당자라면, 보고 양식을 보내기 전에 이 순서를 단체와 함께 밟아 볼 만하다. 작은 단체에서는 모금 담당 한 사람이 보고서를 쓰기도 하니, 회사가 요구하는 지표가 단체가 정한 성공과 다르면 그 사람이 보고서 두 개를 쓰게 될 수 있다. 협약 첫 달에 단체가 정한 성공의 정의를 받고, 회사 지표는 그 가운데서 고르는 편이 낫다고 본다. 사례는 숫자를 살리는 재료지만 이용자를 드러낼 수 있으니 동의와 익명 처리 기준을 함께 정해야 한다. 이번 달에는 내년 보고 양식에서 단체가 영향을 줄 수 없는 지표를 지우는 것부터 해 볼 만하다.

이슈 6

인도 CSR의 비감염성 질환 지원은 암에 몰렸다

> India CSR 보도에 따르면 사트바 컨설팅 보고서에서 인도 CSR 지출은 2024~25회계연도 4만 794크로르 루피였다. 비감염성 질환 관련 CSR의 약 62%가 암에, 약 12%가 심혈관 질환에 갔는데, 심혈관 질환은 사망의 약 3분의 1이다.

건강 분야 사회공헌을 하는 기업이라면, 우리 돈이 문제의 크기와 같은 곳에 가는지 한 장으로 대 보는 방식을 빌려 볼 만하다. 보고서는 암 지원을 줄이자는 뜻이 아니라 질병 부담 전체에 맞춰 균형을 보자고 했다. 국내라면 회사가 지원하는 질환이나 대상 목록을 적고, 공공 통계의 부담 순위와 나란히 놓아 비어 있는 칸을 찾는 식이다. 보고서가 조기 진단과 치료 지속이 여전히 큰 과제인 곳에서 CSR이 도울 수 있다고 든 예방·검진·치료 지속 단계를 고르면 같은 예산이 더 필요한 자리로 갈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회사 사업과의 연관성과 협력 기관의 역량도 함께 따져야 한다. 이번 달 할 일은 지난 몇 해의 지원 내역을 분야별로 묶어 비중을 계산해 보는 것이다.

이슈 7

손보사가 후원한 보전 활동의 5개년 계획이 국가 인정을 받았다

> 일본NPO센터 발표에 따르면 손해보험재팬이 2011년부터 후원해 온 시민 참여 보전 사업이 돕는 나라·고치 두 활동의 실시계획이 국가의 자연공생 사이트로 인정돼, 이 사업을 거친 인정이 8곳이 됐다. 2025년 법 개정 뒤 인정 대상은 5개년 계획이다.

환경 봉사를 해 온 기업이라면 행사 횟수보다 결과가 제도에 남는 길을 설계에 넣어 볼 만하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인정 신청 과정과 신청 뒤 보전 활동 지원을 주제에 더했다. 회사 돈은 행사를, 지역 중간 지원 조직은 서류와 관계를, 주민 단체는 현장을 맡는 세 겹 구조로 읽힌다. 국내라면 하천·숲 정화 봉사를 해 온 곳 가운데 지자체의 보호 지역이나 관리 협약으로 이어질 후보를 찾고, 신청 서류를 도울 지역 중간 지원 조직을 함께 묶는 식이다. 인정에는 여러 해 계획이 필요해 1년짜리 후원으로는 닿기 어렵다고 본다. 이번 달 첫 걸음은 지난 몇 년간 봉사한 장소 목록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슈 8

야오시는 상담 기관들을 잇는 자리를 따로 두었다

> 후쿠시신문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 야오시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시가 함께 움직이는 모델로 지역 포럼이 열렸다. 시는 모든 상담 기관을 잇는 연결 지원실을 두었고, 시사협 조사에서 이웃 교류가 거의 없는 시민은 8.7%였다.

지역 복지관이나 지자체와 협력하는 기업·공공기관 담당자라면, 봉사처를 정할 때 그 지역에 상담 기관을 잇는 자리가 있는지 먼저 물어볼 만하다.
전국사회복지협의회 무라키 아쓰코 회장은 제도라는 줄을 그물로 엮으려면 매듭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직원 봉사는 그 매듭 가운데 이웃 가까이 닿는 쪽을 맡을 수 있다고 본다. 안부 확인이나 장보기 동행처럼 이웃과 마주치는 활동은 발견한 어려움을 연결 창구로 넘기는 절차가 함께 있어야 쓸모가 커진다. 봉사자가 무엇을 보고 누구에게 알릴지를 한 장으로 정해 두는 것이 첫 걸음이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기관의 안내를 먼저 받아야 한다.

이슈 9

유방암 단체들은 봉사 시간을 돈의 값으로 보여 줬다

> Vita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유로파 도나 네트워크 단체들의 지난해 봉사 37만 3,207시간은 통계청 시간당 부가가치로 약 1,250만 유로다. 2023년보다 봉사자는 5,856명에서 3,744명으로 줄었지만 시간은 늘었다.

임직원 봉사 성과를 시간으로만 보고하는 담당자라면, 공공 통계의 시간당 값을 붙여 환산하는 방식을 빌려 볼 만하다. 다만 보고서도 밝혔듯 이것은 실제로 아낀 돈이 아니라 일의 값을 매긴 것이라, 그 점을 함께 적어야 오해가 없다. 눈여겨볼 것은 사람 수가 줄어도 시간이 늘었다는 대목이다. 참여 인원만 세면 봉사가 줄어든 해로 보일 수 있지만, 적은 사람이 오래 맡으면 단체에는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내년 보고 양식에 참여 인원과 함께 1인당 시간과 같은 사람이 이어서 참여한 비율을 적는 칸을 두면 이 차이가 보인다. 이번 달에는 올해 봉사 기록에서 두 번 이상 참여한 사람 수를 뽑아 볼 만하다.

이슈 10

판매 연동 기부금을 사망률 높은 지역 단체 세 곳에 나눴다

> ExpokNews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 방수재 브랜드 PASA와 홀심 재단은 2025년 기부 연계 제품 판매로 모은 44만 1,000페소 남짓을 올해 북부 세 주의 유방암 예방·진료에 썼다. 지역은 사망 통계로 골랐고, 집행은 지역 단체 세 곳과 함께했다.

판매 연동 기부를 운영하는 기업 담당자라면, 모은 돈을 어디에 쓸지 정하는 기준을 공공 통계에 거는 방식을 빌려 볼 만하다. 이 사업은 사망률 지표가 가장 나쁜 북부 세 주를 골랐고, 각 주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함께 쓰임을 정했다. 같은 돈이 한 단체에서는 자가 검진 교육과 검사 지원으로, 다른 단체에서는 유방 촬영 장비를 돌릴 진료실로 갔다. 현장 단체가 필요를 정하게 한 결과로 읽힌다. 한 해 판매로 모으고 이듬해 쓰는 일정도 참고할 만하다. 판매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단체와는 최소 금액을 먼저 정하는 편이 낫다. 이번 달에는 기부 연계 상품이 있다면 지원 지역을 고를 공공 통계 한두 개를 정해 볼 만하다.

이슈 11

지역재단 기부자 열에 하나 넘게는 성과를 모른다

> The NonProfit Times 보도에 따르면 미국·캐나다 지역재단 60곳의 기부자 8,001명 조사에서 13%는 재단이 지역에 영향을 내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만족한다는 답이 가장 적은 일은 다른 기부자와 이어 주는 것(71%)이었다.

임직원 기부금을 지역 기관이나 재단에 맡기는 기업 담당자라면, 기부자인 직원에게 돌아가는 소식이 충분한지 먼저 볼 만하다. 이 조사에서 기부자 만족을 가른 것은 재단의 지역 이해와 지역 영향, 직원 응답성이었다. 직원 기부도 해마다 같은 기관에 보내기만 하면 열에 하나 넘는 사람이 쓰임을 모른 채 남을 수 있다고 본다. 연말 한 번의 감사 메일 대신 분기마다 기관이 본 동네 소식을 한 단락으로 받아 전하고, 같은 분야에 기부하는 직원들끼리 기관 방문을 함께 가게 하는 것도 다른 일보다 만족이 덜한 연결을 채우는 방법으로 읽힌다. 이번 달에는 기관에 내년 소식 주기와 형식을 미리 물어 둘 만하다.

이슈 12

마호우 재단은 업계 일자리 해법을 함께 쓴 선언문으로 냈다

> Corresponsables 보도에 따르면 마호우 산미겔 재단은 동문 프로그램에서 외식업 일자리를 위한 선언문을 냈다. 업계 종사자·기업·학교·청년·사회단체가 몇 달 동안 함께 만들었고, 경력 경로·종사자 복지 등 다섯 갈래를 담았다.

업종 단체나 재단을 둔 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라면, 지원금 공모 대신 업계의 공동 문제를 한 문서로 함께 쓰는 자리를 열어 볼 만하다. 이 재단은 종사자·기업·학교·청년·단체를 몇 달 동안 불러 다섯 갈래의 길을 정리했다. 돈을 나누기 전에 같은 문제를 같은 말로 적게 하면 이후 지원이 흩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국내라면 돌봄·외식·물류처럼 인력난을 겪는 업종의 회사가 협력 단체와 청년을 함께 불러 반나절 워크숍을 여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결과물은 선언보다 다음 해 지원 분야를 정하는 근거로 쓰여야 쓸모가 남는다. 이번 달 첫 걸음은 함께 부를 사람의 명단을 직군별로 적는 것이다.

위 내용에는 편집진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움직인 것

한전KPS·한국가스공사·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임직원 물품을 굿윌스토어에 기부해 장애인 일자리 재원으로 돌렸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17일 제주 한림읍에 60~70대 20명이 일하는 세대통합형 카페 할로마켓 3호점을 열었다.

굿네이버스는 규모·업종·금액 제한 없이 기업이 아동 지원에 참여하는 Light ON 캠페인을 2027년 1월까지 연다.

기업및기업재단사회공헌협회는 12월 9일 실무진 6명의 발표를 현직 리더 40여 명이 심사하는 첫 사회공헌 어워즈를 연다.

전망

12월 31일까지 국내 기업이나 기업재단이 푸드뱅크·복지기관과 2년 이상 식품 지원 협약을 맺었다는 보도가 나온다

30%

스페인 굿맨은 모금 참여 뒤 3년 약정으로 넓혔다. 국내는 김장 행사가 몰리는 철이지만 다년 협약 보도는 이번 주 찾지 못했다. 남은 기간이 6주라 셋에 하나 아래로 본다. 11월 21일~12월 31일 국내 기사에서 기업·기업재단이 2년 이상 식품(김치 포함) 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적은 기사가 1건 이상이면 맞음(포털 검색 기준).

12월 31일까지 국내 모금 단체나 기부 플랫폼이 공격·장애로 연말 기부 접수를 멈췄다는 보도가 나온다

15%

미국에서는 도너퍼펙트가 11월 공격으로 고객 접속을 닷새 가까이 막았다. 국내 사례는 이번 주 찾지 못했고, 접수가 멈춘 일이 기사가 되는 경우도 드물다고 본다. 11월 21일~12월 31일 국내 기사에서 모금 단체·플랫폼의 온라인 기부 접수 중단을 적은 기사가 1건 이상이면 맞음. 예고된 점검은 세지 않는다.

지난 전망 점검

11월 3주 호 전망 1(12월 31일까지 삼성 밖 노사 성과급 기부 매칭 합의): 아직 판정 전. 포스코노동조합의 1억 원 후원은 노조 단독이라 세지 않는다.

11월 3주 호 전망 2(영국 정부의 단체 보호 대책): 아직 판정 전. 이번 주에는 정부의 이름 붙은 대책 발표를 찾지 못했다.

지난 호는 단체의 끝을 돕는 일을 썼다. 이번 주 영국 서리의 가족 돌봄자 지원 단체 크로스로즈는 카운티 의회 계약 셋을 잃고 이달 말 문을 닫는다.

이번 주 짧게

지난 호에 다룬 에어비앤비닷오르그는 영국에서 병원 근처 무료 숙소에 100만 파운드를 대는 사업을 열었다.

미국 아메리케어스는 30년 후원한 가문에게서 5년에 걸쳐 5,000만 달러를 받아 일부를 기금으로 쌓는다.

미국 기부 관리 플랫폼 도너퍼펙트는 사이버 공격으로 11월 10일 저녁 고객 1만 1,000여 곳의 접속을 막았다.

편집장의 글

이번 주 일곱 가지는 주는 쪽이 무엇을 쥐고 무엇을 받는 쪽에 넘기는지를 묻는다. 독일 공모 다수는 금액을 비워 둔 채 품을 신청자에게 넘기고, 한 조사의 익명 답에는 구조를 오래 지원해 달라는 말이 실렸다. 잉글랜드와 미국의 큰 기금은 기간과 결정권을 넘기되 그 돈을 굴릴 역량을 문턱으로 세웠고, 미국 단체가 역량에 배정하는 몫의 중간값은 1~2%였다. 기업 쪽에서는 스페인 한 회사가 직원 참여를 3년 약정으로 넓혔고, 연말 모금은 첫 주에 건수가, 중순에 평균 금액이 크다. 달리기 모금은 해외 자선 출전권과 국내 참가비 행사의 한 명 몫이 크게 다르다. 고향사랑기부는 전액 공제되는 10만 원까지가 직원 부담이 거의 없는 구간이다. 대부분 한 주의 보고서와 사례라 굳은 흐름이라 하기는

이르다. 다음 주에는 레플렉타가 24일 여는 보고서 설명회에서 지원 기관 쪽 답이 나오는지, 국내 연말 모금이 12월 첫 주에 어떻게 열리는지를 본다.

1 빈칸 요강에 AI 신청과 AI 심사가 맞붙는 것으로 읽힌다
독일 수치는 레플렉타 보고서, AI 심사는 스위스 스페리크 대표 인터뷰, 접근성은 신청 시스템 회사의 비대표 측정. 맞붙는 구도는 이 지면의 읽기. 금액을 밝힌 공모에서도 포기 비율이 같으면 틀린다.
Fundraiser-Magazin (독일, 11월) · Fundraiser-Magazin (스위스, 11월) · Fundraiser-Magazin (독일, 11월)

2 두 큰 기금은 기간을 걸고 받는 쪽 역량을 문턱으로 둔 것으로 읽힌다
잉글랜드는 UK Fundraising, 미국은 크로니클, 독일은 레플렉타 보고서 기사. 연간 금액은 고르게 나간다고 친 나눗셈, 역량이 문턱이 된다는 것은 읽기. 운영 단체 모집에 조건을 채운 지원이 넘치면 틀린다.
UK Fundraising (영국, 11월) · The Chronicle of Philanthropy (미국, 11월) · Fundraiser-Magazin (독일, 11월)

3 행사 너머 한 해 식품 물량은 약정과 구매가 채우는 것으로 읽힌다
굿맨 경로는 Corresponsables, 서산 사례는 투어코리아. 연간 금액은 나눗셈. 김장이 약정으로 이어진 국내 사례는 못 찾았다. 협력 기관 대부분이 하루 행사를 원하면 틀린다.
Corresponsables (스페인, 11월) · 투어코리아 (한국, 11월)

4 12월 기부는 고르게 퍼지고, 큰 금액은 중순에 오는 것으로 읽힌다
영국 수치는 엔서스 자사 자료(표본 비공개), 미국은 블랙보드 블로그. 두 단계 읽기는 이 지면의 몫. 국내 연말 기부가 마지막 주에 몰린다는 자료가 나오면 약하다.
UK Fundraising (영국, 11월) · Blackbaud Blog (미국, 11월)

5 해외 자선 출전권은 참가자가 모으고, 국내 한 행사는 참가비에 멈췄다
영국 수치는 UK Fundraising이 전한 리얼버즈 보고서, 국내는 한국NGO신문. 1인 평균은 계산, 국내는 행사 1건이고 대회 조건이 다르다. 국내 개인 모금형 달리기의 1인 모금이 참가비 수준이면 틀린다.
UK Fundraising (영국, 11월) · 한국NGO신문 (한국, 11월)

6 역량 몫 1~2%에서 작은 단체는 시작점부터 막힌 것으로 읽힌다
미국 수치는 NPT가 전한 캐털리스트 익스체인지 보고서, 스페인은 에스플라이 표본 301곳. 큰 재원의 문턱과 잇는 것은 이 지면의 읽기. 역량 지원을 받은 작은 단체도 다년 사업 관리가 같으면 틀린다.
The NonProfit Times (미국, 11월) · Corresponsables (스페인, 11월)

7 직장 단위 고향사랑기부는 10만 원 선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읽힌다
영주와 제도 설명은 이로운넷, 보성·강진은 농수축산신문. 1인 평균은 이 지면의 나눗셈, 10만 원 선은 두 사례와 공제 구간에 기댄 읽기. 직장 단위 기부의 1인 평균이 크게 높다는 자료가 나오면 틀린다.
이로운넷 (한국, 11월) · 농수축산신문 (한국, 11월)

이슈 1 공익법인이 놓치기 쉬운 의무는 전용계좌 신고다
아름다운재단 재무회계팀장의 안내 글에 기댄 아이디어. 개별 사안은 세무 판단이 필요하고, 해당 규정이 바뀌면 이 제안도 달라진다.
아름다운재단 (한국, 11월)

이슈 2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대신 두 회사가 기금을 만들었다
아름다운재단 보도자료에 기댄 아이디어. 협력사 공동 기금이 한 해 만에 끊기는 경우가 흔하다면 다년 약정이라는 제안은 약하다.
아름다운재단 (한국, 11월)

이슈 3 팬클럽은 고향사랑기부 답례품까지 지역에 다시 내놓았다
이로운넷의 영주시 발표 보도에 기댄 아이디어. 답례품 환원 절차가 번거로워 참여가 거의 없다는 지자체 자료가 나오면 약하다.
이로운넷 (한국, 11월)

이슈 4 힐튼 재단은 청년 견습 과정 하나를 통째로 맡았다
UK Fundraising의 힐튼 발표 보도에 기댄 아이디어. 과정 전액 지원이 여러 단체 분산 지원보다 수료나 취업에서 낫지 않다는 자료가 나오면 약하다.
UK Fundraising (영국, 11월)

이슈 5 혼자 만드는 성과 보고서는 성공의 정의부터 정한다
크로니클의 전문가 조언 기사에 기댄 아이디어. 단체가 정한 성공으로 쓴 보고가 회사 지표 보고보다 내부 설득에 약하다는 자료가 나오면 약하다.
The Chronicle of Philanthropy (미국, 11월)

이슈 6 인도 CSR의 비감염성 질환 지원은 암에 몰렸다
India CSR의 사트바 보고서 보도에 기댄 아이디어. 국내 기업의 건강 사회공헌이 이미 질병 부담에 맞게 고르다는 자료가 나오면 약하다.
India CSR (인도, 11월)

이슈 7 손보사가 후원한 보전 활동의 5개년 계획이 국가 인정을 받았다
일본NPO센터 발표에 기댄 아이디어. 국내에 기업 봉사지를 이어 줄 제도가 맞지 않거나 신청 부담이 크다면 이 제안의 쓸모는 작다.
일본NPO센터 (일본, 11월)

이슈 8 야오시는 상담 기관들을 잇는 자리를 따로 두었다
후쿠시신문의 포럼 보도에 기댄 아이디어. 봉사자가 넘긴 사례가 연결 창구에서 거의 처리되지 않는다는 자료가 나오면 약하다.
후쿠시신문 (일본, 11월)

이슈 9 유방암 단체들은 봉사 시간을 돈의 값으로 보여 줬다
Vita의 유로파 도나 보고서 보도에 기댄 아이디어. 환산액 보고가 내부 예산 확보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자료가 나오면 약하다.
Vita (이탈리아, 11월)

이슈 10 판매 연동 기부금을 사망률 높은 지역 단체 세 곳에 나눴다
ExpokNews의 사업 결과 보도에 기댄 아이디어. 통계로 고른 지역에서 협력 단체를 찾기 어려워 집행이 늦어진다면 약하다.
ExpokNews (멕시코, 11월)

이슈 11 지역재단 기부자 열에 하나 넘게는 성과를 모른다
NPT의 기부자 인식 조사 보도에 기댄 아이디어. 직원 기부자는 소식 빈도와 무관하게 참여한다는 국내 자료가 나오면 약하다.
The NonProfit Times (미국, 11월)

이슈 12 마호우 재단은 업계 일자리 해법을 함께 쓴 선언문으로 냈다
Corresponsables의 재단 발표 보도에 기댄 아이디어. 공동 선언 뒤 실제 지원이 따르지 않아 참여자가 줄었다는 사례가 흔하면 약하다.
Corresponsables (스페인, 11월)

작성자: 문화미래기획자 정헌영 & AI. 인용한 자료는 저작권 기준을 준수했습니다.